

라키비움 이용자의 인식과 만족도가 지역 기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자체 운영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Effects of Users' Perceptions and Satisfaction on Perceived Community Contribution of Larchiveums: Focusing on Local Government-Operated Larchiveums

박 지 혜 (Jihye Park)**

김 수 정 (Soojung Kim)***

초 록

본 연구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라키비움인 남원다움관과 증평기록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사회 및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두 기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00개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의 라키비움 개념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해당 기관을 라키비움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용목적 달성은 라키비움이 지역정체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간 비교에서는 일부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운영 방식과 이용자의 이용 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라키비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정체성 인식 제고, 이용목적 달성 중심의 서비스 설계, 그리고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user perceptions and satisfaction in two local government-operated larchiveums - Namwondaumgwon and Jeungpyeong Archives - and analyzes how these factors influence perceptions of community contribution and local identity. To achieve this, online and offlin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users of both institutions, resulting in a total of 100 responses. The results show that users' awareness of the concept of a larchiveum was relatively low. However, the extent to which they recognized the institutions as larchiveum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satisfaction. In addition, achievement of usage purposes significantly influenced perceptions that larchiveums contribute to local identity. Differences were also identified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in several variables, which appear to stem from differences in operational methods and user behavior pattern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identity, design services centered on user goal attainment, and develop customized operational strategies that reflect user need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larchiveums.

키워드: 라키비움, 이용자 인식, 이용자 만족도, 지역사회, 지역정체성

Larchiveum, User Perception, User Satisfaction, Community, Local Identity

*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2026.6)을 요약·수정한 것임.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wisdom7163@naver.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

(kimsoojung@jbnu.ac.kr / ISNI 0000 0004 6324 634X)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5월 10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5월 20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2): 115-134,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2.115>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정보 이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전통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기관 간의 기능적 경계 역시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수집·보존·서비스하려는 복합문화정보기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라키비움(Larchiveum)은 2008년 메간 윈젯(Megan Winget)이 제시한 개념으로,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통합형 정보기관을 의미한다(Kuzyk, 2008). 이는 세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운영 모형으로서,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구축 사례를 통해 실제 운영 모델로 구현되고 있다.

라키비움은 단순히 여러 유형의 자료를 한 공간에 집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보존하며 이를 매개로 이용자와 소통하는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기능한다. 특히 지역 기반 라키비움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 기억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조승훈, 2025).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라키비움은 지역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및 지역정체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라키비움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구축 전략이나 운영 모델의 이론적 제안 혹은 사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를 평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소연과 김지현(2022)은 라키비움 활성화를 위해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이용자의 긍정적 반응과 서비스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운영 라키비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식과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라키비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지역정체성을 강화하는 주체로서 기능하는지에 대해 이용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라키비움인 남원다움관과 증평기록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라키비움의 지역사회 기여와 지역정체성 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RQ1. 라키비움 이용자의 인식과 만족도는 어떠한가?
- RQ2. 남원다움관과 증평기록관 이용자 간 인식과 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RQ3. 라키비움 이용자의 인식과 만족도는 라키비움의 지역사회 및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선행연구

라키비움의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구축 방안에 관한 논의가 다각도로 전개되어 왔다. 최영실(2012)이 라키비움 공간 기획 절차를 제안한 것을 필두로, 배성중 외(2014)는 소규모 대학에 라키비움 공간 구성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오정훈과 이응봉(2014)은 한국원자력 라키비움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박승진과 이정미(2018)는 미래형 도서관 모델로서 라키비움의 구축 절차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보다 최근에 이현정(2021)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사례로 라키비움의 필요성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라키비움의 공간 구성과 운영 모델을 중심으로 이론적·실무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라키비움 이용자의 인식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 왔다. 김미연(2016)은 인천지역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토자료 수집과 전시 서비스 등 라키비움의 기능적 요소가 이미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구축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개념적 이해와 제도적 기반, 예산 및 인력 확보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혜(2018) 역시 국회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예산 확보가 서비스 운영의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박도원과 오효정(2023)은 대학기록관과 도서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록관과 도서관의 융합 모델인 라카이브(Larchive) 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기관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공간·예산·인력 측

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승호(2026)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GLAM(Gallery·Library·Archive·Museum) 및 라키비움 개념의 인식을 분석하고, 체험 중심의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용자 관점을 포함하여 라키비움 운영을 다룬 연구로는 유소연과 김지현(2022)이 있다. 해당 연구는 실무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인식 개선과 예산·인력 확보, 기관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소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양적 분석을 통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라키비움의 지역적 역할과 가치에 주목한 연구들도 일부 수행되었다. 조승훈(2025)은 라키비움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수집·보존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송진아(2026) 또한 생활문화시설의 기능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라키비움의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일찍이 문재경(2016)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를 통해 복합문화공간 만족도가 지역애착도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공간 구성, 구축 방안, 운영 모델 등을 다루거나 실무자 중심의 인식 조사에 편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용자 관점에서의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지역 기반의 라키비움이 지역사회나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실제 이용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

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이용자 인식을 바탕으로 라키비움의 지역적 역할과 가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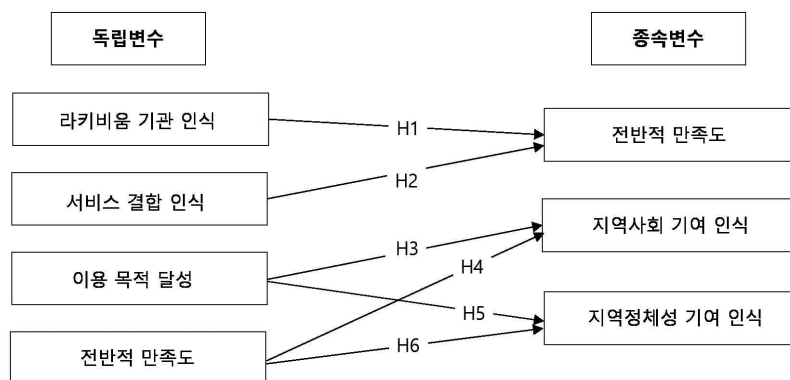
라키비움과 같은 복합문화정보기관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기관을 라키비움으로 인식하는지와 서로 다른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서비스 품질 평가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목적 달성도와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라키비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며, 이는 나아가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가치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위의 연구모형에 기반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라키비움 기관 인식은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서비스 결합 인식은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이용목적 달성은 라키비움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전반적 만족도는 라키비움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이용목적 달성은 라키비움의 지역정체성 기여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전반적 만족도는 라키비움의 지역정체성 기여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연구대상 및 설문 절차

본 연구는 남원다움관과 증평기록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기관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라키비움으로, 지역의 역사·



<그림 1> 연구모형

문화 관련 기록을 조사·수집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보 제공, 전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남원다움관은 2019년 10월 개관한 라키비움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민간기록물 수집과 지역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지역 기록을 지속적으로 축적·활용하고 있다. 증평기록관은 2003년 개칭한 충청북도 증평군 소속기관으로, 초기에는 내부 공무원 중심의 기록관리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2020년 이후 공간 확장을 통해 주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으로 조성되었다(신유림, 2025). 또한, 2025년 7월 1일 자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면서 현재는 해당 팀이 기록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두 기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 QR코드를 배치하여 구글폼(Google Forms)으

로 연결되는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문항은 김보일과 김선호(2017), 배성중 외(2014), 유소연과 김지현(2022), 최문정(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남원다움관 이용자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의 이해도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 라키비움의 지역 기여에 대한 인식, 만족도, 서비스 개선 요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된 16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 1〉 참조).

이 중 묶음 문항으로 구성된 세 개의 변수(서비스 결합 인식, 지역사회 기여 인식, 지역 정체성 기여 인식)는 각각 복수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측정 내용은 〈표 2〉와 같다. 또한, 이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

〈표 1〉 설문 문항 구성

설문 영역	문항 내용	문항 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대, 직업, 이용횟수, 방문목적	5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	• 라키비움 개념 인식 • 라키비움 기관 인식 • 라키비움 기관 대표 기능 인식 • 서비스 결합 인식	4
라키비움의 지역 기여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 기여 인식 •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	2
만족도	• 이용목적 달성 • 전반적 만족도 • 불만족 사유	3
서비스 개선 요구	• 서비스별 개선 필요성 • 서비스 개선 의견	2
합계		16

〈표 2〉 변수의 하위 요인

변수	하위 요인	문항 내용
서비스 결합 인식	편리성	도서·기록·전시 자료를 한 번에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음
	연결성	전시 관람 후 관련 도서나 기록물을 찾아보기 쉽게 연결되어 있음
	조화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이 별개의 시설처럼 느껴지지 않고 조화롭게 느껴짐
지역사회 기여 인식	교류 환경	지역의 분위기를 느끼고 사람들과 교류하기에 적합함
	문화적 욕구 충족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	지역 인지도 상승 및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됨
	쾌적한 환경	주변 지역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고 쾌적한 환경 제공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	필요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상징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임
	전승	지역의 기록을 수집·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고유성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친밀감과 긍정적 이미지	지역에 대한 친밀감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짐

〈표 3〉 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N=100)

변수	하위 요인 수	Cronbach's α
서비스 결합 인식	3	.778
지역사회 기여 인식	5	.823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	4	.855

수의 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표 3〉 참조).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파악하였고, 주요 변수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두 기관 간 주요 변수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변수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에 앞서 분산팽창지수(VIF)와 Durbin-Watson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성을 점검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최종적으로 총 100명의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남원다움관 이용자는 67명(67.0%), 증평기록관 이용자는 33명(33.0%)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56.0%로 남자 44.0%보다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100)

항목	구분	남원다움관 응답자수(%)	증평기록관 응답자수(%)	합계(%)
성별	남자	26 (38.8)	18 (54.5)	44 (44.0)
	여자	41 (61.1)	15 (45.4)	56 (56.0)
연령	20대	4 (5.9)	2 (6.0)	6 (6.0)
	30대	20 (29.8)	18 (54.5)	38 (38.0)
	40대	33 (49.2)	7 (21.2)	40 (40.0)
	50대 이상	10 (14.9)	6 (18.1)	16 (16.0)
직업	직장인	39 (58.2)	15 (45.4)	54 (54.0)
	자영업	9 (13.4)	12 (36.3)	21 (21.0)
	대학(원)생	4 (5.9)	4 (12.1)	8 (8.0)
	전업주부	8 (11.9)	2 (6.0)	10 (10.0)
	기타	7 (10.4)	0 (0.0)	7 (7.0)
기관 이용 횟수	이번이 처음	46 (68.6)	7 (21.2)	53 (53.0)
	2~3회	13 (19.4)	3 (9.0)	16 (16.0)
	4~5회	3 (4.4)	11 (33.3)	14 (14.0)
	6회 이상	5 (7.4)	12 (36.3)	17 (17.0)
	합계	67 (100.0)	33 (100.0)	100 (100.0)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40대(40.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대(38%)가 그 뒤를 이었으며, 50대 이상(16.0%), 20대(6.0%)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를 보면, 직장인이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주요 이용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영업(21.0%), 전업주부(10.0%), 대학(원)생(8.0%)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용횟수에서는 처음 방문자가 53.0%로 가장 많아 신규 이용자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6회 이상 17.0%, 2~3회 16.0%, 4~5회 14.0% 순으로 나타나 재방문 이용자도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문 목적은 복수응답으로 측정한 결과, 전시 관람이 54명(3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체험·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 26명(17.9%), 도서 및 일반 자료 열람·대출 등 정보 이용 24명(16.6%), 휴식, 모임 등 커피

니티 공간 이용 21명(14.5%), 지역 기록물 열람·조사 및 연구 활동 18명(12.4%), 기타 2명(1.4%)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기관별 응답자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두 기관은 주 이용자와 방문 목적, 기관 이용 횟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원다움관은 여성(61.2%)과 40대(49.2%)의 비중이 높았으며, 첫 방문자(68.6%)가 다수를 차지했다. 방문 목적 또한 전시 관람(45.4%)과 체험·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25.0%) 중심의 이용 특성을 보였다. 반면, 증평기록관은 남성(54.5%)과 30대 이하(60.5%) 젊은 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회 이상 방문자(69.6%)가 많아 반복 이용 비중이 높았다. 직업 분포에서는 증평기록관은 자영업자(36.3%) 비율이 남원다움관(1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방문 목적은 도서 및 일반 자료 열람·대출(57.6%), 전시 관람(42.4%), 지

〈표 5〉 방문 목적(중복응답, N = 100)

구분	남원다움관 응답자수(%)	증평기록관 응답자수(%)	합계(%)
전시 관람	40 (45.4)	14 (24.5)	54 (37.2)
체험·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	22 (25.0)	4 (7.0)	26 (17.9)
도서 및 일반 자료 열람·대출 등 정보 이용	5 (5.6)	19 (33.3)	24 (16.6)
휴식, 모임 등 커뮤니티 공간 이용	12 (13.6)	9 (15.7)	21 (14.5)
지역 기록물 열람, 조사 및 연구 활동	7 (7.9)	11 (19.2)	18 (12.4)
기타	2 (2.2)	0 (0.0)	2 (1.4)
합계	88 (100.0)	57 (100.0)	145 (100.0)

역 기록물 열람, 조사 및 연구 활동(33.3%) 순으로 나타나 자료 활용 중심 이용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차이는 두 기관의 운영 방식과 이용자의 이용 행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 휴관하고 평일에만 운영하는 증평기록관은 지역 내 자영업자의 이용 비중이 높고 관광보다는 반복적·일상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며, 개인적 필요를 위한 방문 목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주말에도 개관하는 남원다움관은 전시 관람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중심으로 신규 방문객 유입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현장 설문조사 과정에서 가족 단위 이용자가 다수 관찰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말 여가 목적의 방문이 40대 여성의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3.2 이용자 인식

이용자의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 및 지역 기여에 대한 인식을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라키비움' 개념에 대한 인지도는 리커트 척도 5점 만점에 평균 2.08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어진 문항에서 개념 설명 후 해당 기관을 라키비움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3.54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이 '라키비움' 용어 자체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개념 설명이 제공될 경우 해당 기관의 성격을 라키비움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 결합 인식은 평균 3.96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기관 내 다양한 기능이 비교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기여 인식(4.05), 지역정

〈표 6〉 인식 항목 평균 및 표준편차(N = 100)

항목	평균	표준편차
라키비움 개념 인지	2.08	1.16
라키비움 기관 인식	3.54	1.16
서비스 결합 인식	3.96	0.75
지역사회 기여 인식	4.05	0.70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	4.22	0.71

체성 기여 인식(4.22)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이용자들이 라키비움이 지역사회와 지역정체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용자가 방문한 기관이 어떤 기능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인식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두 기관 모두 기록관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7〉 참조). 이러한 결과는 기관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와 콘텐츠가 기록관리 및 보존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물관 기능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용자들이 해당 기관을 단순한 기록 보존 공간을 넘어 관람과 문화 향유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도서관 기능에 대한 인식을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응답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과 해당 기관의 기능적 차이로 인해 도서관 기능을 기관의 대표적 정체성보다는 부수적인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3 만족도

이용목적 달성과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4.01, 3.92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라키비움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 참조).

추가로 전반적 만족도 문항에서 불만족을 응답한 13명(13.0%)을 대상으로 주관식으로 제시된 불만족 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인적 서비스 및 응대가 8명(61.5%)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표 9〉 참조). 이어 프로그램·행사 및 운영·접근성은 각각 2명(15.4%), 시설 및 환경은 1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즉, 두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소수의 불만족 원인은 주로 인적 서비스 및 응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서비스 개선 요구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 필요성의 평균

〈표 7〉 기관 대표 기능 인식(N=100)

구분	남원다움관	증평기록관	평균
기록관 기능을 대표한다.	4.12	4.27	4.17
도서관 기능을 대표한다.	3.22	2.76	3.07
박물관 기능을 대표한다.	3.85	3.97	3.89

〈표 8〉 인식 항목 평균 및 표준편차(N=100)

항목	평균	표준편차
이용목적 달성	4.01	0.81
전반적 만족도	3.92	1.04

〈표 9〉 서비스 불만족 이유(N=13)

불만족 이유	응답자 수(%)
인적 서비스 및 응대(직원 전문성 부족, 불친절, 정보 안내 미흡)	8 (61.5)
프로그램 및 행사(전시 내용의 흥미성 부족,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또는 질적 수준 미흡)	2 (15.4)
운영 및 접근성(운영 시간의 불편함, 지리적 위치 문제, 주차 및 교통 불편)	2 (15.4)
시설 및 환경(좌석 부족, 공간 협소, 동선 불편, 노후 장비)	1 (7.7)
합계	13 (100.0)

〈표 10〉 서비스별 개선 필요성 평균 및 표준편차(N=100)

항목	평균	표준편차
체험형 전시·공동체 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3.98	1.05
맞춤형 교육 및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3.91	0.96
검색 통합 시스템 강화	3.88	0.85
이용자 편의 시설 확충	3.75	0.94
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3.67	1.17
전체	3.84	0.69

은 3.84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0〉 참조).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체험형 전시와 공동체 문화 프로그램 다양화'(3.98)와 '맞춤형 교육 및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3.91)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 요구를 보였으며, '연구지원 서비스 강화'(3.67)는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이용자들이 참여형 프로그램과 교육 서비스 확대에 대해 비교적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5 두 기관 간 차이

남원다움관과 증평기록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요 변수의 기관 간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 결과, 두 기관을 라키비움 기관 인식과 이용목적 달성, 전반적 만족도의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라키비움 개념 인지를 비롯하여 서비스 결합 인식, 지역사회 기여 인식, 지역정체성 기여, 서비스 개선 필요성의 일부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라키비움 개념 인지는 t-test 분석 결과, 증평기록관(2.82)이 남원다움관(1.7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969, p<.001$). 그러나 두 기관 모두 평균값이 3점 미만으로 나타나 기관 간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용자들이 라키비움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서비스 결합 인식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평기록관 이용자들이 남원다움관 이용자에 비해 항목에서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t-test 분석 결과, '조화'($t=-2.453, p<.05$)와 '연결성'($t=-4.085, p<.001$), 그리고 서비스 결합 인식 전체($t=-3.20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

〈표 11〉 두 기관 간 차이 분석 결과(N=100)

변수	하위 요인	유의한 차이	평균(표준편차)		검정값	
			남원다움관	증평기록관	t	p
라키비움 개념 인지	-	○	1.72(1.03)	2.82(1.07)	-4.969	<.001
라키비움 기관 인식	-	×	3.45(1.15)	3.73(1.18)	-1.136	.259
이용목적 달성	-	×	3.94(0.72)	4.15(0.97)	-1.109	.273
전반적 만족도	-	×	3.99(0.81)	3.79(1.41)	.746	.460
서비스 결합 인식	전체	○	3.80(0.77)	4.28(0.57)	-3.204	.002
	편리성	×	3.94(0.76)	4.27(0.88)	-1.960	.053
	연결성	○	3.57(0.91)	4.18(0.58)	-4.085	<.001
	조화	○	3.88(0.98)	4.39(1.00)	-2.453	.016
지역사회 기여 인식	전체	○	3.94(0.70)	4.27(0.65)	-2.226	.028
	교류 환경	○	3.96(0.86)	4.58(0.79)	-3.479	.001
	문화적 욕구 충족	×	3.75(0.88)	3.48(1.58)	.884	.382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	○	3.91(0.88)	4.48(0.83)	-3.114	.002
	쾌적한 환경	○	3.94(0.81)	4.45(0.62)	-3.200	.002
	필요성	×	4.16(0.71)	4.33(0.85)	-.983	.330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	전체	×	4.13(0.67)	4.40(0.74)	-1.852	.067
	상징성	×	4.10(0.78)	4.12(1.24)	-.071	.944
	전승	○	4.22(0.76)	4.76(0.50)	-4.200	.000
	고유성	○	4.03(0.83)	4.58(0.56)	-3.396	.001
	친밀감과 긍정적 이미지	×	4.15(0.68)	4.15(1.23)	-.010	.992
	서비스 개선 필요성	×	3.90(0.60)	3.72(0.85)	-.744	.459
서비스 개선 필요성	검색 시스템	×	3.84(.83)	3.97(.88)	-.744	.459
	교육 프로그램	×	3.81(.87)	4.12(1.11)	-1.547	.125
	연구지원 서비스	×	3.85(.72)	3.30(1.63)	1.844	.073
	체험형 전시와 프로그램	○	4.16(.88)	3.61(1.27)	2.265	.028
	편의 시설	×	3.82(.92)	3.61(.97)	1.080	.283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편리성'(t=-1.960, p=.053)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기관 모두 기본적인 이용 편리성은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 간 조화로운 전시 및 기록물과의 연결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서는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기여 인식에서는 '문화적 욕구 충

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증평기록관 이용자들이 더 높은 평가를 보였다. t-test 분석 결과, '교류 환경'(t=-3.479, p<.01),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t=-3.114, p<.01), '쾌적한 환경'(t=-3.200, p<.01) 항목과 지역사회 기여 인식 전체(t=-2.22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증평기록관이 지역사회와의 교류 공간으로서의 역할, 지역 발

전 기여, 환경적 쾌적성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필수 시설로서의 인식은 두 기관 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의 경우, '고유성'(t=-3.396, p<.01)과 '전승'(t=-4.200, p<.001)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증평기록관 이용자들이 해당 기관을 지역 고유성 반영과 기록 전승 기능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승' 항목은 두 기관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남원다움관 4.22, 증평기록관 4.76)을 보여, 두 기관이 지역 기록 수집·보존 및 미래 세대로의 전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징성'(t=-.071, p=.944), '친밀감 및 긍정적 이미지'(t=-.010, p=.992), 그리고 지역 정체성 인식 전체(t=-1.852, p=.06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기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자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와 공동체 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2.265, p=.028), 남원다움관(4.16)이 증평기록관(3.6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세부 항목과 개선 필요성 전체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두 기관 이용자들이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유사한 수준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관식 응답 또한 앞서 t-test를 통해 확인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기관별 운영 여건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 주말에도 개관하는 남원다움관은 전시 구성의 연계성 강화와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등 콘텐츠 중심의 개선 요구가 두드러졌다. 반면, 평일에만 운영되는 증평기록관은 공간 협소 문제와 함께 주말·야간 개방, 주차 및 휴식 공간 보강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6 상관관계 검증

앞서 제시한 가설에 포함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12〉 참조). 특히 이용목적 달성과 전반적 만족도(r=.815, p<.001), 지역사회 기여 인식과 지역정체성 인식(r=.792, p<.001)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라키비움 기관 인식과 서비스 결합 인식은 이용목적 달성 및 전반적 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이용자의 인식이 실제 이용 평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7 가설 검증

3.7.1 라키비움 기관 인식과 서비스 결합

인식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라키비움 기관 인식과 서비스 결합 인식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표 1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N = 100)

변인	1	2	3	4	5	6
1. 라키비움 기관 인식	1					
2. 서비스 결합 인식	.436 ($<.001$)	1				
3. 이용목적 달성	.468 ($<.001$)	.385 ($<.001$)	1			
4. 전반적 만족도	.421 ($<.001$)	.212 (.034)	.815 ($<.001$)	1		
5. 지역사회 기여 인식	.419 ($<.001$)	.501 ($<.001$)	.640 ($<.001$)	.635 ($<.001$)	1	
6.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	.395 ($<.001$)	.483 ($<.001$)	.632 ($<.001$)	.532 ($<.001$)	.792 ($<.001$)	1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 검정을 위해 살펴본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234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647로 2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잔차의 자기상관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6.2%로 나타났으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10.541, p<.001$).

회귀분석 결과, 라키비움 기관 인식은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06, p<.001$) (〈표 13〉 참조). 즉, 이용자가 해당 기관을 라키비움으로

인식할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서비스 결합 인식은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035, p=.734$).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을 넘어, 해당 기관이 라키비움이라는 복합문화정보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3.7.2 이용목적 달성과 전반적 만족도가 지역사회 기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용목적 달성과 전반적 만족도가 지역사회 기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표 13〉 라키비움 기관 인식과 서비스 결합 인식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N=100)

항목	B	SE	β	t	p	VIF
(상수)	2.435	.523		4.660	$<.001$	
라키비움 기관 인식	.365	.092	.406	3.972	$<.001$	1.234
서비스 결합 인식	.049	.143	.035	.341	.734	1.234

$R^2=.179, AdjR^2=.162, F=10.541, p<.001, Durbin-Watson=1.647$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 검정을 위해 살펴본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2.979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585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3.6%로 나타났으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39.333, p<.001$).

회귀분석 결과, 이용목적 달성($\beta=.364, p=.006$)과 전반적 만족도($\beta=.338, p=.011$)는 모두 지역사회 기여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즉, 이용목적 달성과 전반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용자들은 해당 라키비움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 기여 인식이 단순히 기관의 객관적인 기능이나 역할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이용자의 개인적 경험과 평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3.7.3 이용목적 달성과 전반적 만족도가 지역 정체성 기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용목적 달성과 전반적 만족도가 지역정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 검정을 위해 살펴본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2.979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648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8.8%로 나타났으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32.367, p<.001$).

회귀분석 결과, 이용목적 달성은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90, p<.001$)(〈표 15〉 참조). 반면, 전반적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51, p=.706$). 이는 이용자가 기관 이용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수록 해당 기관이

〈표 14〉 이용목적 달성과 전반적 만족도가 지역사회 기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N=100)

항목	B	SE	β	t	p	VIF
(상수)	1.908	.266		7.160	<.001	
이용목적 달성	.313	.112	.364	2.798	.006	2.979
전반적 만족도	.226	.087	.338	2.596	.011	2.979

$R^2=.448, Adj.R^2=.436, F=39.333, p<.001, Durbin-Watson=1.585$

〈표 15〉 이용목적 달성과 전반적 만족도가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N=100)

항목	B	SE	β	t	p	VIF
(상수)	2.019	.281		7.176	<.001	
이용목적 달성	.514	.118	.590	4.348	<.001	2.979
전반적 만족도	.035	.092	.051	.379	0.706	2.979

$R^2=.400, Adj.R^2=.388, F=32.367, p<.001, Durbin-Watson=1.648$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이 단순한 이용 만족이나 감정적 평가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이용자가 실제로 경험한 서비스의 성과에 기반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분석 결과, 라키비움 기관 인식은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목적 달성과 전반적 만족도는 지역사회 기여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용목적 달성은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서비스 결합 인식은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전반적 만족도 역시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문제에 대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RQ1. 라키비움 이용자의 인식과 만족도는 어떠한가?

이용자의 라키비움 개념에 대한 사전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개념 설명이 제공된 후 해당 기관을 라키비움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결합 인식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용자들이 도서·기록·전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라키비움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해 통합적 기능을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용자들은 라키비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과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이용자가 직접 경험하고 해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지자체 운영 라키비움이 공공성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긍정적 인식에 기반하여, 라키비움 이용자의 이용목적 달성과 전반적 만족도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만족 요인의 상당 부분이 직원의 응대 서비스에 집중

<표 16> 연구가설 검증 결과

가설	내용	결과(β, p)	채택 여부
H1	라키비움 기관 인식 → 전반적 만족도	β= .406, p<.001	채택
H2	서비스 결합 인식 → 전반적 만족도	β= .035, p=.734	기각
H3	이용목적 달성 → 지역사회 기여 인식	β= .364, p=.006	채택
H4	전반적 만족도 → 지역사회 기여 인식	β= .338, p=.011	채택
H5	이용목적 달성 →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	β= .590, p<.001	채택
H6	전반적 만족도 →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	β= .051, p=.706	기각

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용자 만족도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의미하며, 향후 서비스 질 향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관을 라키비움으로 명확히 인식하는 정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라키비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능 통합을 넘어 기관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RQ2. 남원다움관과 증평기록관 이용자 간 인식과 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두 기관 간 차이는 운영 유형 측면에서 '방문형 문화공간'과 '일상형 정보이용 공간'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주말 개관을 통해 관광 및 여가 기능을 제공하는 남원다움관은 40대 여성과 신규 방문자 중심의 여가 소비형 이용 특성을 보인 반면, 평일에만 운영하는 증평기록관은 젊은층과 자영업자 중심의 반복 이용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이용 행태의 차이는 이용자의 서비스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증평기록관 이용자들은 라키비움 개념 인지와 서비스간 '조화' 및 '연결성' 항목에서 남원다움관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다. 이는 증평기록관의 주된 이용목적이 도서 및 기록 자료의 열람과 대출, 조사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도서관과 기록관 기능의 결합을 실제 이용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사회 기여 인식의 하위 항목인 '교류 환경', '지역 발전 기여', '환경적 쾌적성'에서도 증평기록관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반복 이용을 통해 형

성된 기관과의 심리적 유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기관 모두 '기록 전송' 기능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역 기록의 수집과 보존이라는 핵심 역할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높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에서도 기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시 관람 중심의 남원다움관은 주민 참여형 체험 전시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회성 방문객을 지속적인 참여자로 전환하기 위한 콘텐츠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일상적 자료 활용이 빈번한 증평기록관은 공간 협소 문제와 함께 주말 및 야간 개방 등 물리적·시간적 운영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론적으로 라키비움의 효과적인 운영 전략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향후 남원다움관은 이용자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하고, 증평기록관은 지속적인 일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확충과 운영 시간의 유연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RQ3. 라키비움 이용자의 인식과 만족도는 라키비움의 지역사회 및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회귀분석 결과, 이용목적 달성과 전반적 만족도는 지역사회 기여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용목적 달성은 지역정체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수록 해당 기관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인

식하는 경향이 강화되며, 나아가 지역정체성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전반적 만족도는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이 단순한 감정적 만족도보다 실제 이용 경험의 내용과 성과에 기반하여 형성됨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 사회 기여 인식이 교류 환경, 문화적 욕구 충족,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 쾌적한 환경 등 이용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험적·실용적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면,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성, 지역 기록의 전송, 지역 고유성 반영 등 보다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가치 인식과 관련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용자가 시설과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지역정체성 형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라키비움의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정체성 형성 기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만족도 향상보다 이용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설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시 관람, 자료 열람 및 기록 활용,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목적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가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와 이용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라키비움은 단순한 복합문화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지역정체성을 연결하는 문화

적 기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라키비움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라키비움의 지역사회 및 지역정체성 기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들이 구축 방안이나 운영 전략, 또는 실무자 관점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정체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대상이 증평기록관과 남원다움관이라는 두 개의 지자체 운영 라키비움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전체 지자체 운영 라키비움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표본 수가 남원다움관 67명, 증평기록관 33명으로 총 100명에 불과하고, 기관 간 표본 규모의 차이 또한 존재하여 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양적 연구로서, 이용자의 심층적인 경험이나 인식 형성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운영 주체, 기관 유형 등을 다양화하여 보다 광범위한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운영 기관 간 비교를 통해 라키비움 운영의 특성과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심층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경험과 인식을 다각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승진, 이정미 (2018).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전략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339-359.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3.339>
- 김미연 (2016). 공공도서관 사서의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김보일, 김선호 (2017). LibQUAL+를 적용한 공공도서관 노인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1), 319-344. <https://doi.org/10.16981/kliiss.48.1.201703.319>
- 김승호 (2026). GLAM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문재경 (2016). 복합문화공간 건립이 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박도원, 오효정 (2023). 대학교 라카이브(Larchive) 인식 조사 및 실무 운영 방안. 기록학연구, 77, 151-187. <https://doi.org/10.20923/kjas.2023.77.151>
- 배성중, 배삼열, 김용 (2014). 소규모대학교에서의 라키비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63-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063>
- 송진아 (202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라키비움 특성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립창원대학교.
- 신유림 (2025). 기록관리 패러다임과 지역 기록관의 역할 증평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 135-148. <https://doi.org/10.23035/KAICS.2025.1.특별호.135>
- 안지혜 (2018). 라키비움 서비스에 대한 사서 인식 연구: 국회도서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오정훈, 이응봉 (2014). 전문도서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원자력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229-246.
- 유소연, 김지현 (2022). 국내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205-23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3.205>
- 이현정 (2021). 정부 산하 공공기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조승훈 (2025).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라키비움 구축 방안 연구: 해양문화 자산의 현대적 공간 기획안.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최문정 (2016). 서울소재 복합시설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최영실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Kuzyk, R. (2008, July 30). LJ talks to Megan Winget, who studies preservation of online games. Library Journal. Available:

<https://www.libraryjournal.com/story/lj-talks-to-megan-wingetwho-studiespreservation-of-online-game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Ji-Hye (2018).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archiveum Service by Librarians: Focused on National Assembly Library Member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Bae, Sung-Jung, Bae, Sam-Yeol, & Kim, Yong (2014). A study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larchiveum in a small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4), 63-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063>
- Cho, Seung-Hun (2025). A Study on the Larchiveum Construction Strategy for Strengthening Regional Identity: A Contemporary Spatial Planning Proposal Utilizing Marine Cultural Asset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 Choi, Mun-Jung (2016). Analysis of User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n Public Libraries in Complex Facilities in Seoul.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 Choi, Young-Sil (2012). Research on Larchiveum Spatial Planning: Based on Functional Conversion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 Kim, Bo-Il & Kim, Seon-Ho (2017). A study on the service quality evaluation of older persons in public libraries by the use of LibQUAL+: the case of G-gu in Seou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1), 319-344. <https://doi.org/10.16981/kliss.48.1.201703.319>
- Kim, Mi-Yeon (2016). A Study on Perception of Larchiveum by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Focus on Incheon Metropolitan City.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Kim, Seung-Ho (2026). A Study on GLAM Construction: With Focus on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wak, Seung-Jin & Lee, Jeong-Mi (2018). Study on larchiveum introduction strategy of library as a multi cultural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339-359.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3.339>
- Lee, Hyun-Jung (202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Agency: Focusing on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Moon, Jae-Kyung (2016).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Establishment of a Complex Cultural Space on Regional Attachment: Focusing on the National Asian Cultural Center. Master's

-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Oh, Jeong-Hoon & Lee, Eung-Bong (2014).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archiveum of specialized library: focused on atomic larchiveum. *Journal of Social Science*, 25(2), 229-246.
- Park, Do-Won & Oh, Hyo-Jung (2023).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university larchive and its practical operation pla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77, 151-187. <https://doi.org/10.20923/kjas.2023.77.151>
- Shin, Yoo-Rim (2025). The Record Management Paradigm and the Role of Regional Archive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Jeungpyeong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1, 135-148. <https://doi.org/10.23035/KAICS.2025.1.특별호.135>
- Song, Jin-A (2026).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rchiveums for the Revitalization of Everyday Culture.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Yu, So-Yeon & Kim, Ji-Hyun (2022). A study on plans for facilitating the management of larchiveu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3), 205-23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3.205>